제주사회복지신문

◇ 2020년 8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전화:(064)702-3783~4 / 팩스:(064)702-3383 제154호

도내 첫 청년장애인 브이로그 크리에이터 동아리 3인 인터뷰

“유튜버를 꿈꾸는 장애인에 도움 주고 싶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인 방송이 대세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소소한 일상부터 패러디 영상까지 다양한 영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다. 바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오영순) ‘브이로그 크리에이터 동아리’다. 이에 동아리 참여자 윤용준(34)·윤준혁(28)·이경관(32)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승부 팀장, 윤준혁, 이경관, 윤용준씨

일배움터…영상 촬영·편집 기술 익혀 영상 제작

일배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19년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주 2회씩 청년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브이로그 크리에이터 동아리’를 운영했다.

청년발달장애인들은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자조활동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 지난 6월 11일 일배움터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 ‘플로베TV’를 통해 다양한 영상들을 선보이고 있다.

윤용준씨는 “여러 강사님들과 함께 만들어서 즐거웠다.”며 “꽃 화분 나눔 봉사활동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플로베TV’에는 직장생활 모습부터 광고 패러디, 챌린지 영상 등 청년발달장애인들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의 시간 동안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경관 씨는 “장애가 있지만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앞으로, 먹방이나 빵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준혁 씨는 “편집할 때 출연진이 하는 말을 자막으로 옮기기가 힘들지만 내가 만든 영상이 좋은 작품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 즐겁다.”며 “더 열심히 연습해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동아리 활동을 지도한 강승부 팀장은 “청년장애인이 만든 영상이라고 해서 따뜻함이나, 어두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평범하고 유쾌한 일상을 통해 구독자들이 즐거움을 얻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깰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간소화

나눔대축제 등 취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올해 9월 7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시상식’을 중심으로 간소화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회복지의 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공자 시상식만 진행하는 등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주간행사로 실시된 제주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제주나눔대축제는 취소된다.

마늘 손질 봉사활동 실시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 가구에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회장 이백만)**는 지난달 11일 협의회 앞마당에서 ‘자원봉사 팀웍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마늘 손질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손질된 마늘은 지난달 22~24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총 106개소와 저소득층 236가구에 전달됐다.

한편 이번 마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가 지난달 8일 ‘도내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했다.

지면소개

■ 종합 ……2면
양영식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취임 인터뷰

■ 사회복지소식 …… 4면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확대

■ 오피니언 …… 6면
시론·칼럼·법률홈닥터

■ 사회복지소식 …… 7면
“학교 밖 청소년 권리 보장 이뤄져야”

<나눔 참여 기관·기업 광고③>

Rotary 국제로타리 3662지구

로타리, 기회의 문

RI 회장표어 : 로타리, 기회의 문
총재표어 : 로타리, 변화의 기회

국제로타리란(Rotary International)?

- 1905년 창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봉사단체
- 인류애의 실천이란 모토로 로타리재단 운영
-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활동전개(현재 99% 박멸)
- 6대초점분야(평화구축 및 분쟁예방, 질병예방 및 치료, 수자원 / 위생 및 청결, 모자보건, 기본교육과 문해력, 지역사회 경제개발) 사업전개

국제로타리 RI회장의 표어인 “로타리, 기회의 문”과
3662지구 총재 표어인 “로타리, 변화의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타리 가입문의: 국제로타리3662지구 (사무국)064-727-3662

양영식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취임 인터뷰

“현장 중심 소통으로 정책 발굴할 것”

▲ 취임 소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는 현 시점에서 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제주인의 강인한 삶의 바탕에는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수눌음 정신이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방향은?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도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고 복지·치안·소방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복지와 보건·안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한다.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 사회안전망의 강화, 둘째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적극적인 추진, 셋째 다양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4차 산업 기술 도입의 검토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금번 코로나19사태를 통해 확인된 ‘시민 정신’, ‘시민 연대’를 바탕으로 향후 재난관리 거버넌스 주체로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예산·공공의료 인프라·감염병 대응력 등 확대 역시 필요하다.

▲ 사회복지예산규모 확대 방안은?

저출산·고령화 및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인 상황파악과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와 반영 노력을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장기 복지재정의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한 지금 향후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복지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증세 계획마련에서 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치열한 시민사회 토론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생각하시고 있는 바는?

질적인 교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현장을 의문사로 비유하자면 where가 아니라 who이다. 누구를 만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현장 대표자들과의 만남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의 대표자, 종사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듣고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대담=김성건 사무처장·정리=김승지 기자>

제주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등 구성

제주도의회 의장 좌남수
부의장 정민구·강연호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 이상봉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
환경도시위원장 강성의
농수축경제위원장 현길호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안창남
교육위원장 부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종태

좌남수 도의회 의장

정민구 도의회 부의장

강연호 도의회 부의장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부공남 교육위원장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일 제3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장단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의장단은 유일한 4선 의원인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 부의장, 강연호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이어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에 3선의 김용범 의원이 뽑혔으며, 행정자치위원장에는 이상봉 의원이, 보건복지안전위원장에는 양영식 의원이 선임됐다.

이어 환경도시위원장의 경우는 강성의 의원이 당선됐고, 농수축경제위원장에는 현길호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3선의 무소속 안창남 의원이, 교육위원장은 부공남 위원이 뽑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문종태 의원이 선출됐고,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김용범 의원이 선출됐다.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 대표에는 김희현 의원, 통합당 대표에는 오영희 의원,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된 미래제주 대표에는 오대익 교육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7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돈등뼈 264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2,423개 ▲(주)쿱스토어 제주이도점=빵 363봉 ▲Jolie=식료품 19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참나눔봉사단=국수 142개 ▲굿샵=식료품 547개 ▲김치원=김치 20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0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260개 ▲던킨도너츠 탑동점=빵 788 ▲델문도 로스터스=빵 75 ▲델문도 로스터스=빵 280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4,062개 ▲땅스부대찌개=두부 7kg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710봉 ▲롯데제과=롯제제과식품 10,698개 ▲모앙=빵 203봉 ▲미인빵=빵 162봉 ▲비엔누아즈=빵 141봉 ▲세창상회=식료품 350개 ▲소민떡방=떡 282개 ▲알파통상=식료품 2034개 ▲약속다방=쿠키 92개 ▲이든이네=멸치 6.5kg ▲제주보리촌=보리빵 470개 ▲주인성=돼지등뼈 92kg ▲참새방앗간=떡 1,354개 ▲코시롱둠비=두부 99개 ▲픽스커피공단점=빵 33봉 ▲해맑은 떡방= 209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6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가결연후원	640,000	46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400,000	400,000
복지사업 후원	1,000,000	0
푸드마켓 후원	2,915,000	1,502,000

“장애인 차별·편견 없는 세상 만들 것”

지난달 24일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한정효)는 지난달 24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지난 4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개최됐고, 참석인원도 50명으로 제한하는 등 행사규모도 축소됐다.

한정효 회장은 “어려울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성숙한 사회가 되고 또한, 차별 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의 목표는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차별과 편견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장한장애인대상 성정자 ▲장애인어버이대상 박영재 ▲장애인도우미대상 제주미담로타리클럽 ▲장애인복지특별상 양승혁·고은호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양소은, 함동윤, 강수연 ▲제주도지사 표창 변경은, 강춘희, 김미자, 이선희, 박선미, 송현종, 양용석, 송상훈, 김나래, 김학래, 오승진, 오은혜, 한탁용, 김황진, 김동환, 강옥란, 이아름, 강경옥, 안혜란, 강명수, 현순임, 김승현, 양희재, 이선영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기간 연장…조리사 1명 채용 지원영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8명을 채용하고,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파견 지원하고 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출산·교육·휴가·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파견해 해당시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에서 맡고 있다. 대체인력을 원하는 시설은 1회 연속 5일 이내로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606건에 이어 올 6월말 기준 302건이다.

지난해는 휴가로 인한 인력지원이 298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올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돌봄 인력지원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는 조리원 1명을 채용해 사회복지사로 한정됐던 대체인력 지원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기간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설이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설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30일 **국제로타리 3662지구(총재 동화 고권진)**는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이웃사랑 쌀(1,000kg)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는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7대 총재(동화 고권진)** 취임 기념 쌀을 지원해 도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나눔으로 함께하고자 이루어졌다.

고권진 총재는 “로타리 봉사 이념에 기반, 취임 첫 일정을 나눔으로 시작하여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봉사와 나눔 실천을 통해 도내 이웃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만들고자 진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6일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다솜로타리클럽(회장 도경 고지원)**도 메종글래드에서 제주푸드뱅크에 234만원 상당 이웃사랑 쌀(780kg)을 기부했다.

이 날 기부는 제주다솜로타리클럽 제3대 회장 취임 축하 쌀을 지원,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

고지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 나눔을 통해 우리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힘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 사회복지 현장을 담는다

지난달 16일 ‘히스토리 월’ 제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6일 회관 로비에서 ‘히스토리 월(History Wall)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히스토리 월’은 제주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기록을 통해 제주복지의 흐름을 알리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히스토리 월’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연혁과 함께 제주 사회복지 1호 시설 개원 당시의 모습, 제주사회복지신문에 연재되었던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게재 인물 등을 다룬 ‘제주사회복지의 인물’, 역대 회장 소개, 사회복지현장 등이 담겨있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3년 제주 사회복지 1호 시설 13곳을 대상으로 현판을 증정했으며, 추가 1호 시설을 찾아 현판을 증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폐지- 사무처장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월에 개최되지 못한 2020년 정기총회를 지난달 13~21일까지 서면결의로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019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과 정관 개정안이 심의됐다. 안건은 재적회원 301명중 171명의 찬성을 얻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따라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중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던 ‘상근부회장’ 직제가 8월 1일부터 폐지되고, 사무처장 직제가 운영된다. 사무처장에는 김성건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발 행 안 내

■ **발행인** : 고승화 ■ **편집인** : 김성건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확대

지난해 대비 66%↑… 11억5648만원 투입

제주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생활안정 기금을 전년대비 66% 증액해 저소득층의 빈곤예방과 자립기반 마련 등 자활사업을 한다.

올해 자활과 생활안정기금 사업 예산은 지난해 6억 9,635만원 대비 66% 증액된 11억 5,648여 만원으로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사업,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자활기업 등에 대한 특성화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지침에 의거해 사업장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임대료는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대비 86%가 증액된 2억 2400여만원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47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융자성 사업 외에도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점포 전세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조기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연 1억원 이내 저금리로 생업 자금과 전세자금 융자도 실시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등 인프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 문의는 제주도 복지정책과로 하면 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코로나19 극복 놀이키트 프로그램 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지선)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가정에서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위기가 발견되고 있음에 따라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놀이키트 홈팩 '집에서 놀(면서) 자(란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놀이키트는 구좌·조천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용 100세트, 유아용 100세트를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받아 전달했다. 놀이키트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쉽고 안전하게 갖고 놀 수 있는 놀이용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놀이키트 배부는 비대면 전달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최종 배부 후 인터넷 설문을 통해 만족도 조사, 후기 공모전도 실시했다. <사진>

복지관 관계자는 "후기 공모전으로 게시된 글과 사진에서의 밝은 모습은 놀이키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복지관과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허유승)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와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부모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 법정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률,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이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지원내용과 사업주가 궁금해 했던 분야, 근로자들이 대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12월까지이며, 도내 소재지를 둔 사업장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부모회 홈페이지(www.jejubumo.or.kr)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하거나 자료실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팩스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소/식/마/당 (무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금 기탁

(주)제우스(대표 김한상)는 지난달 17일 제우스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금 5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에 기부했다.

김한상 대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가 장애인 김치·밑반찬 나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 삼다수생산3팀 직원과 제주한라대학교 멘토스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가 장애인을 위한 여름김치와 밑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500ml 1200개를 지원하는 등 뜻깊은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탐험 활동 기본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는 지난달 4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탐험 활동을 위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 및 응급처치, 음식준비와 조리, 캠프 기술 및 장비사용법 등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극복 생필품 전달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최영열)는 지난달 8일 통합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필품과 식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물품으로 손 소독 티슈, 세정제와 10가지 식품으로 구성됐다.

봉사활동 사고예방 교육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승태)은 최근 복지관에서 모다들엉 연합자원봉사단 소속 단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생활속거리두기 실천과 봉사활동 사고예방에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교육 후에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윷놀이 시간을 통해 상호간에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시간을 가졌다.

신장장애인 문화적 감각 향상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태균)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신장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 감각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을 제작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소/식/마/당 (무순)

코로나19 방역활동 눈길

(사)월드쉐어와 하나방역 제주지사(지사장 황현호)는 지난달 6일 **제주소나이그룹홈(대표 김완숙)**을 방문해 코로나19 소독과 해충 방역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사)월드쉐어와 하나방역은 도내 그룹홈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외 16곳에 매월 1회 사회공헌활동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 소독과 해충 등의 방역을 실시할 것을 협약했다.

보조기구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지난달 1일 찾아가는 보조공학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주영지학교를 방문해 보조기구 점검과 수리, 살균소독 서비스를 실시했다.

9일에는 '초자와수다' 행사로 가파도를 방문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지팡이 지원, 다시 쓰기 사업 연계 사업으로 리사무소에 수동휠체어를 보급했다.

발달장애인 여가문화 확대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라인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이용자들의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여가문화를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인 인권증진·권익 옹호 주력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배황진)은 지난달 14일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흥기)**에서 세대 간 이해와 공감, 가족사랑 실천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SNS 나비새김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오는 9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배황진 관장은 "노인 인권 증진과 권익 옹호에 최선을 다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 멘토링 사업 운영

제주몽생이그룹홈(시설장 윤문희)은 최근 그룹홈 아동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꿈이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몽생이그룹홈 관계자는 "이번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아동들의 성장발달과 정서안정, 긍정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 강화 지원 사업 선정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는 최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 회장 마재순)**가 진행한 '2020 복권기금 저소득 아동·청소년 안전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쉼터 보건의료 비용과 급식비가 증가했는데 이번 지원으로 입소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자재 꾸러미 50상자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6월 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드림나눔 봉사단 면세사업본부로부터 식자재 박스 꾸러미 50상자를 전달 받았다.

JDC 드림나눔 봉사단 관계자는 "학대피해 어르신들에게 물품 지원을 통한 복지 나눔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이번 후원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쌀 30포대 전달 나눔 실천

제주돌담로타리클럽(회장 강언민)은 6월 22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을 방문해 송죽원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쌀 30포대를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이 날 제주돌담로타리클럽 관계자는 "오늘의 인연으로 시작해 앞으로도 봉사활동의 기회를 갖고 자주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부모자녀 유대관계 도모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선)는 지난 6월 20일 **사회적농장 담을밭(대표 한태호)**과 연계해 가족과 함께 비자림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결혼이주여성 가족들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와 숲 체험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 증진과 심리적 안정감 도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능보강사업 지원금 기탁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회장 태을 강명순)은 지난 6월 18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에 기능보강사업 지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강명순 회장은 "시설에 노후 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교체해 센터 이용 장애인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탁부모 자조모임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최근 서귀포시 지역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제2회 자조모임 '사랑Dreamy'를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 날 자조모임을 통해 위탁부모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동 양육에 서로가 힘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됐다." 며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 위탁부모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애인 체력증진 노력

서귀포시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강동균)와 **정혜재활원(원장 이홍기)**은 지난 6월 19일 거주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태권도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 교실은 매주 금요일마다 효돈 힘찬태권도장에서 진행된다. 이와함께 협회 자문위원인 카페드숑 사장님이 매회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시론

새끼가 둥지를 떠나면

오후 두 시가 되면 새내기 초등학생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다. 이에 맞춰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린다. 집으로 데려가거나 자동차로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다. 나도 젊은 학부모 틈에 끼어 학교 수업이 끝난 외손녀를 자동차에 태워 학원으로 보낸다. 학원에서 다시 다른 학원으로 보내지고, 교사인 엄마가 퇴근할 때 같이 집으로 간다. 요즘 초등학생을 둔 대다수 학부모가 겪는 일상의 단면이다.

맞벌이 딸네 외손녀는 학교 수업과 학원 일정표가 엄마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짜여있다. 그 틈새를 연결하는 일이 나의 오후 일과가 되었다. 시대적 생활상에 맞춰 할아버지가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이 되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이번 처음이 아니다. 아들네도 맞벌이라 삼 년 전까지 친손자 둘을 지금처럼 뒷바라지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스스로 시간에 맞춰 도서관이나 학원으로 간다. 이들 뒷바라지가 끝나니 지금 외손녀를 보게 되었고, 다섯 살 된 외손자가 한 명 더 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모성애가 강하다는 새들도 새끼가 둥지를 떠나 하늘을 날면 해방이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다. 자식이 출가하면 해방이라는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엄습하게 된다. 자식이 떠난 자리에 찾아오는 빈둥지증후군이다. 그것도 잠시, 일년쯤 지나서 허전함이 가실 즈음이면 자식 대신 손주를 돌봐야 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닥뜨리게 된다. 자연스레 할아버지 역할이 부여된다.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역할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숙명적 혈연관계이기에 손주가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싫지가 않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릴 나이에 어린이집에 맡겨진다. 초등학교에 가도 아침에 집을 나서면 학원에서 온종일을 보낸다. 학원에 맡겨놓은 아이를 걱정하며 직장에서 애쓰는 아들딸과 손주들이 안쓰럽고 애처롭다.

현대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삶은 팍팍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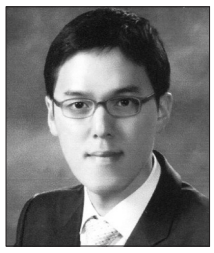
부모의 도움 없이는 노력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직장과 집을 마련하지 못하니 결혼을 못 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키울 처지가 못되니 출산을 포기한다. 저출산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하다.

내 자식들은 맞벌이 직장인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걱정이었는데, 내가 걱정을 덜어주는 셈이다. 손주들을 돌보는 보편적인 일상이지만, 이 역할이 삶의 보람으로 승화되며 작은 행복감을 느낀다.

문 익 순
수필가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 73

어린이차량은 왜 노란색일까?



황 인 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며 이동시 탑승하는 차량은 모두 노란색이다. 다양한 개성이 존중받는 이 시대에 우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법으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이들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라고 부른다(이하 '버스'). 이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과 체육시설이다.

어린이차량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도 계속 개정되며 보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보면, 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이를 지켜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여부를 떠나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노란색이어야만 하는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있는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집 차량이 알록달록한 색상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칼럼

다리 꽁꽁 묶인 고양이

청테이프로 다리 꽁꽁 묶인 고양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버려진 고양이. 생후 3개월쯤 된 새끼 고양이가 앞·뒷다리가 청테이프로 둘둘 감긴 채 낑낑거리고 있었다는 것. 지나던 동물보건사가 신음을 듣고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한다. 테이프가 강력해 다리 피부가 벗겨져 있었단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화된 포식자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없지만, 무기로 동물들을 지배한다. 또 습관적으로 필요 이상 살상한다. 동물의 숫자가 줄어들어 심하면 멸종되기도 한다. 특정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면 사냥을 일삼다 변덕스레 호들갑을 떤다. "살려내야 한다." 시치미 떼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복원사업을 펼치기도 한다. 전혀 다른 얼굴이다.

동물, 그들은 '타자'다. 인간에게 단지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한편으론 개발과 경제 성장의 명분으로, 다른 한편으론 보호·보존의 이름으로. 만약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그 판단 기준은 뻔하다. 어느 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비용을 소요하느냐다. 이런 관점이 그들 운명을 좌우한다. 무지막지하다.

어설픈 사랑은 고통

나는 극단적 동물애호가도 동물보호주의자도 아니다. 하지만 종종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심하게 다친 고양이는 불쌍하다. 명절 때면 쓰레기 속에 버려진 그들을 쉬 볼 수 있다. 귀성하는 데 장애다. 비닐봉지 속에서 바동대는 그들. 반려는 애완과 다르다. 가족이 돼 함께 사는 게 반려다. 반려견·반려묘는 가족이다.

사르트르는 계약결혼으로 유명했다. 사실혼인 보봐르에게 호적상 처가 아니란 이유로 재산 상속이 안되자 반려견에게 물려줬다 한다. 고료 수입으로 축적한 재산이 어마어마했다.

개와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다. 인연이 아닌지 정성을 다했지만 떠나갔다. 그래도 버려진 그들을 보면 갈등을 겪는다. 쓰레기를 헤집는 고양이를 못 본 척 지나친다. 삶을 구성하는 이율배반의 하나, 양심과 이해타산이 부딪는 순간이다.

사랑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건 아닌가. 짐승은 짐승으로 차가운 대상의 세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설픈 사랑은 고통이다. 허투루 거둘 게 못된다.

김 길 웅
칼럼니스트

“학교 밖 청소년 권리 보장 이뤄져야”

지난달 9일 교육·복지 지원 정책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와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9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이 날 간담회는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소속 대안교육기관,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다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도와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경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평등에 기초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은 무상교육인데 대안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차별이고 당연한 권리가 박탈된 것인 만큼 논의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도 상황을 고려한 관련 사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며,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공동대응방안 논의

사회복지직능단체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2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현장과 행정간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간담회에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을 비롯한 17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과 도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을 비롯한 복지관련 4개부서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거주시설 이용자들과 가족들의 면회 방법 개발,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시설 운영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임태봉 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복지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코로나19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도효도차- 탑써’ 운영사업 본격 추진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우도주민들의 병·의원 이용에 이동편의를 제공할 ‘우도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물품을 적극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매년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 등을 검토해 성과분석한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우도 효도차 탑써 운영사업의 시행을 위해 우도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운영사업단을 구성하고,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모든 제반 행정적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9일 **작은세상봉사단(단장 허향숙)**을 대상으로 ‘2차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도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 전문 도배강사를 파견해 도배 관련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는 동시에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활동까지 추진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봉사활동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의회 소속 6개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첫 번째 교육으로 **온누리봉사회(회장 홍태욱)**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생명사랑 톡톡 65+) 교육을 실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역량강화와 전문 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주여성 지원 사업 운영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소장 김산옥)는 지난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이주여성과 제주도민이 함께 활동하는 ‘너여서 다행이야!’ 자원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자원활동단은 이주여성과 제주도민 20여명이 2인 1조로 모여 활동을 하게 되며 사각지대 이주여성 지원과 이주여성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벌이게 된다.

상담소는 사각지대 이주여성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기간은 8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ccwm.or.kr) 전화(722-62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거환경 봉사활동 실시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관장 이은경)와 **어우렁봉사단(대표 이영식)**은 최근 도내 독거노인 8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어우렁봉사단은 상반기 8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총 16가구에 대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영식 대표는 “어르신께 조금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 회원 모두가 보람을 느낀다.” 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은경 관장은 “지역 내 주거취약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어우렁봉사단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독거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8월 어우렁봉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귀포시 지역 내 사례관리 독거노인 6가구를 찾아 도배·장판교체, 가스배관 정비, 누수보고 공사 등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⑪

제주들꽃합창단(문화 · 예술)

아름다운 하모니로 나눔 실천

아름다운 하모니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이 있다. 바로 '**제주들꽃합창단(단장 원석철)**'이다.

제주들꽃합창단은 2014년 5월, 주부와 직장여성으로 구성된 여상합창단으로 창단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재창단 했다.

이후 노래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2018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거리예술제, 나눔대축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인 합동 정년 퇴임식'에서 제주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년 퇴임 사회복지인들을 위한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사진>

이 날 공연은 정년 퇴임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단원들이 고심하여 선정한 곡들로 진행됐다.

또한 합창단은 주 1회 실시하는 **민성음 지휘자(제주도립예술단 소속 합창단원)**의 전문교육을 들으며 스스로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공연봉사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원석철 단장은 "우리가 시작하면 또 다른 누군가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계획했던 시설봉사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부족한 실력이지만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 재능기부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단원들 모두 기뻐했다."며 "하반기 공연 봉사활동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 지원금 전달

36개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선정

도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도민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이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달 10일 모금회 나눔실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36개 기관 및 단체에 사업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도민 체감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원이 늘어난 총 5억 원의 사업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총 63개 기관이 응모해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으며,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3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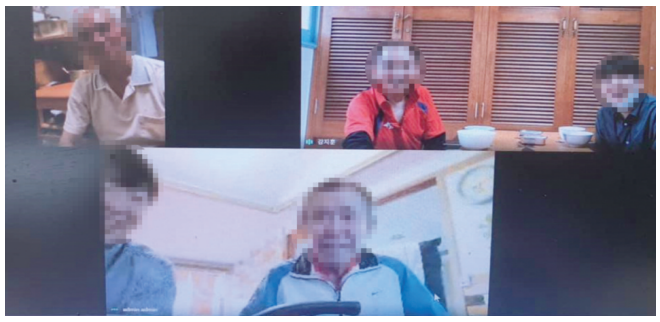
주요 제안 사업내용 중 자활사업 참여자의 살림살이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교육, 저장 강박증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년발달장애인 봉사활동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코로나블루 극복사업, 사회복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제주복지TV 운영 사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층을 위한 사업아이디어부터 코로나19 극복까지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도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공동 극복을 위한 비대면 복지프로그램

온라인 식사·비대면 물품 제공 등 다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3~17일 코로나19 상황 공동 극복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복지프로그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4개 기관 9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서귀포시서부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식사 모임을 운영하는 모습.

서귀포시서부종합복지관은 스마트도구를 사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사모임, 차모임 등을 실시해 이웃관계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린이발레, 꼬꼬마발레, 필라테스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구글미트를 사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교육 및 회의 등을 비대면으로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SNS를 통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토탈공예 프로그램과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을 위해 비대면으로 치매예방 학습지를 전달하고 사진편집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건강한 여가시간 활동을 위해 드라이브스루로 놀이키트를 배부하고, 사용 후기를 받았다.

※ 코로나19 상황 공동 극복을 위한 비대면 복지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기업 모집

오는 31일까지…인정제 멤버십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기관 및 기업을 모집한다.

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협력관계에 기반한 비영리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타단체(협동조합,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다.

사회공헌 활동 인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 우수 인정기업·기관 정부포상, 인정제 멤버십 서비스 제공, 후원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https://cr-ckorea.kr/csrcommunity)에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결과는 9월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10월 지역 및 중앙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된다.